



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이 호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(hlee@kiep.go.kr, Tel: 3460-1012)

나 수 엽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(syna@kiep.go.kr, Tel: 3460-1072)

주요 내용

- ▣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사상 최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 및 물가, 금리정책,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년 하반기 미국경제 향방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- ▣ 그러나 카트리나가 미국 및 우리 경제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일반적으로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는 민간부문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GDP 증가율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, 재해 복구를 위한 건설부문의 지출증가, 생산물류시설 복구 등은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.
 - 미국의 경우 공격적인 정부재정 지출 확대와 더불어 탄력적인 금융-노동시장이 시장의 수요·공급기능을 회복시켜 거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.
- ▣ 카트리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 추이, 유가의 향방, 미국의 정책금리 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.
- ▣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완만하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카트리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한편 미국의 단기정책금리 인상이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완급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, 양국간 금리역전현상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
1. 최근 미국경제 현황: 카트리나 이전

-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하기 전 미국경제는 2/4분기 들어 경제성장이 약간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지출의 증가, 고용여건 향상, 생산증가 및 주택경기 활황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음.
- 금년 1/4분기 실질GDP증가율이 3.8%를 기록한 데 이어, 2/4분기 성장률은 기업들의 대규모 재고조정에 따라 3.3%(잠정치)로 둔화됨.
- 그러나 미국의 실질GDP증가율은 2003년 2/4분기부터 9분기 연속 3%를 상회함으로써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
표 1. 미국경제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

	2005년 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실질GDP증가율(%)	3.8(1/4)	←	3.3(2/4)	→		
개인소비지출증가율(%)	0.5	0.7	-0.1	1.0	1.0	-
소매판매증가율(%)	0.3	1.8	-0.3	1.7	1.8	-
산업생산증가율(%)	0.2	-0.3	0.3	0.9	-	-
비국방부문자본재 신규주문증가율(%)	-4.9	4.3	18.7	-2.2	-7.3	-
소비자신뢰지수	102.4	97.5	103.1	106.2	103.6	105.6
ISM지수	55.2	53.3	51.4	53.8	56.6	53.6
신규주택판매호수(천 호)	1,307	1,269	1,298	1,324	1,410	-
비농업부문고용증가(천 명)	122	292	126	175	242	169
실업률(%)	5.2	5.2	5.1	5.0	5.0	4.9

주: 1) 소비자신뢰지수는 컨퍼런스보드 발표기준임.

2) ISM지수는 제조업경기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50이상이면 제조업경기 팽창을 의미함.

- 미국의 주택금융기관인 Freddie Mac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문은 주택 순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올해 3천억 달러를 조달하였고, 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소비증가를 주도함.
-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경제예측기관 및 투자은행들은 3/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4%대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음.

2. 카트리나가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

가. 카트리나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

- 지난 8월 29일 멕시코만 일대를 비롯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최대 1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바, 이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).
- 허리케인 앤드류(1992. 8)와 LA지진(1994. 1)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200억 달러 미만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(표 2 참고).
- 카트리나의 경우는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루이지애나는 물론 앨라배마, 미시시피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된데다 멕시코 연안 일대의 주요 항만시설과 석유생산 및 정유시설 등 에너지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이전의 자연재해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됨.

표 2. 미국 주요 자연재난 및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보조규모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재난 및 사태	시점	경제적 손실(A)			경제적 보조(B)			B/A(%)
		파괴	생산손실	총손실	보험	정부보조	총보조	
허리케인 Ivan	2004. 9	7.3	6.5	13.8	7.3	6.3	13.6	98.6
9.11테러	2001. 9	25.7	60.4	86.1	17.0	67.3	84.2	97.8
LA 지진	1994. 1	20.1	12.5	32.7	3.3	15.5	18.8	57.6
중서부 홍수	1993 여름	6.1	9.4	15.5	1.3	7.0	8.4	53.9
허리케인 Andrew	1992. 8	36.7	11.6	48.4	21.5	10.8	32.3	66.8
캘리포니아 지진	1989. 10	10.6	5.4	16.0	1.6	7.6	9.2	57.3
허리케인 Hugo	1989. 9	14.5	4.7	19.2	6.6	3.1	9.7	50.4

주: B/A는 경제적 손실대비 보조비율

자료: Economy.com

나. 유가

- 1) 월스트리트저널(WSJ) 9월 7일자에 따르면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1,500억 달러에서 2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
- 이번에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연안은 미국 석유 총생산의 약 30%, 천연가스 총생산의 약 20%를 차지하고 정유시설의 약 50%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.
 - 그러나 1979년 이후 미국의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석유소비 증가는 9%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효율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이번과 같이 공급요인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미국 에너지부(Department of Energy)와 국제에너지기구(International Energy Agency)가 이미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카트리나로 인한 공급부족을 해소하고자 각종 환경 및 운송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킴.

다. 물가상승

- 단기적으로 음식료 및 에너지를 포함하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 - 주요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로 인한 물류비용 인상은 음식료 및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(core inflation)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.
 -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은 1973~74년의 제1차 오일쇼크와는 다를 것으로 보임.
- 1973년 11월 오일쇼크 이후, 코어 인플레이션(음식료 및 에너지 제외)은 4.7%에서 11.0%로 상승하였는데, 이는 당시 주택부문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음.

라. 금리인상의 속도조절

- 카트리나 발생 이전의 대체적인 전망은 美 연준리(FRB)가 금년에 남은 세 차례(9. 20, 11.1, 12/13)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0.25%포인트씩 인상하여 금년 말까지 4.25%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.
- 현재 미국의 단기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10번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의 결과 3.5% 수준임.
- FRB는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

미국경제의 장기적 잠재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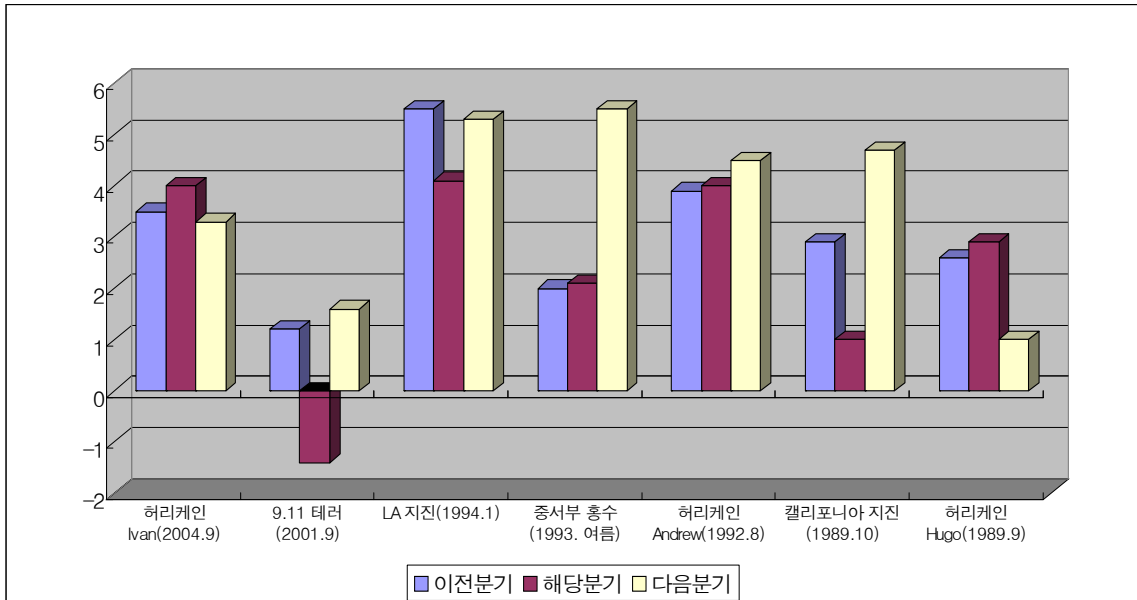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재해복구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는 필요하나 금융정책의 기초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음.
- 9.11테러사태 당시 미국경제는 이미 불황기에 진입해 있었으며 기업환경은 2000~01년 주식시장의 침체로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FRB는 공격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음.
- 반면 현 상황은 지속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각종 신뢰지수도 양호하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나 금융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.
- 오는 9월 20일 FOMC 회의 이전에 이용 가능한 거시경제지표는 각종 신뢰지수와 같은 서베이 지표를 제외하고는 카트리나 이전의 거시상황에 관한 자료일 것이므로 현재처럼 카트리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큼.
- 이러한 예상은 FRB의 금융정책이 거시경제의 제반지표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시장참여자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(credibility)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.
- 따라서 FRB는 오는 9월 20일 FOMC 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11월과 12월 두 번의 회의에서 그간의 정책기조에 입각한 금리인상을 재추진하여 4.0%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.

마.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

- 허리케인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해당 분기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해가 발생한 다음 분기부터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(그림 1 참고).
- 9.11테러사태의 경우 해당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이미 시작된 미국경제의 후퇴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카트리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.

그림 1. 미국의 주요 자연재난 및 사태와 실질GDP증가율

(단위: %)



-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원유가격 100%의 상승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 1% 하락을 초래함.
 - 유가상승은 미국 GDP의 70%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가계부문의 소비가 위축되고, 기업이윤이 축소됨에 따라 투자유인이 감소하여 GDP의 18%를 차지하는 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함.
 - 이처럼 민간부문의 지출이 축소되는 만큼 GDP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, 재해복구를 위한 건설부문의 지출증가, 생산물류시설 복구 등은 GDP 증가로 이어짐.
- 미국의 경우 공격적인 정부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탄력적인 금융노동시장이 시장의 수요·공급기능을 회복시켜 거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 - 이러한 이유로 시장은 카트리나가 2006년 미국경제의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.
- 이에 따라 미국의 2005년 4/4분기 GDP 성장률은 2.5%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, 2006년 1/4분기에는 3%대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- 이러한 상승의 근거로는 재해 복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지출이 623억 달러,²⁾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200억~25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기초한 것임.

바. 쌍둥이적자 확대 및 달러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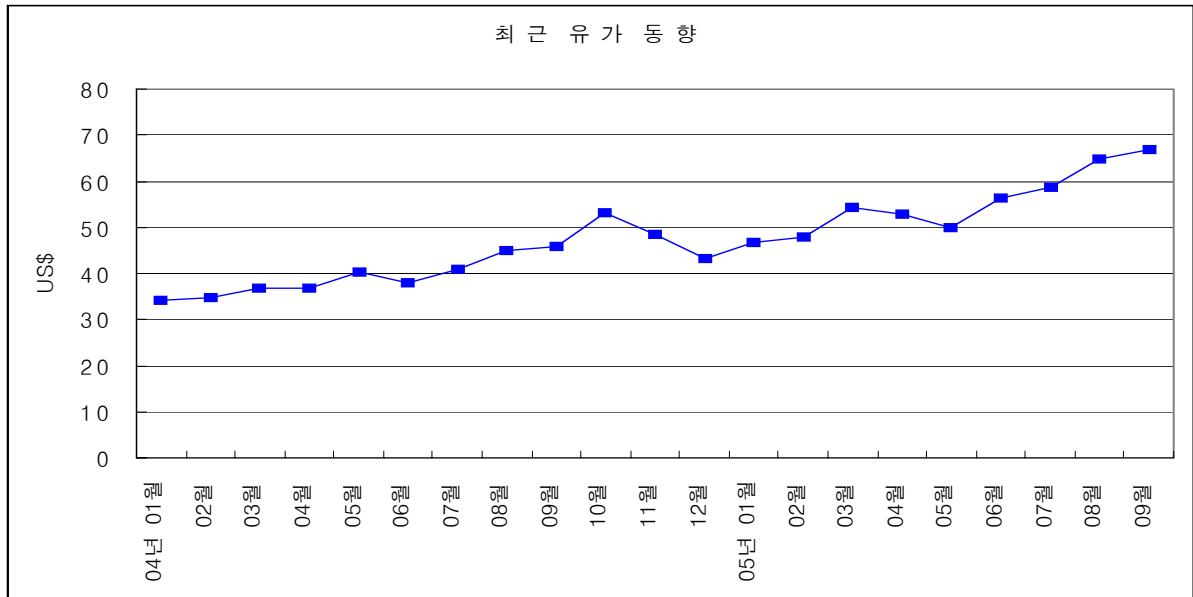
-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지출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.
- 카트리나 직후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의회에 약 105억 달러에 달하는 복구지원을 요청하였으며 9월 2일 상원이 이를 승인하였고 9월 7일 백악관은 행정부가 518억 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- 이는 이미 지난해 6,681억 달러(GDP 대비 5.7%)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쌍둥이적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. 미국의 200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,121억 달러(GDP 대비 3.6%)임.

3.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

- 카트리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 추이, 유가의 향방, 미국의 정책 금리 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.
- 우리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(International Energy Agency)의 결정에 부응하여, 전략비축유(SPR) 288만 배럴의 방출을 결정함.
- 단기적으로 원유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은 전략비축유 방출로 진정된 것으로 보여, 또 다른 공급 불안요인이 있지 않는 한, 원유가는 배럴당 65~7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커보임.
- 원유가격은 지난 2년간 84% 상승하여, 불과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200% 이상 상승하였던 1973~74년과 1979~80년의 유가상승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.

2) 이는 9월 2일 미국 의회가 승인한 복구지원지출 105억 달러와 518억 달러의 추가지원 예상액을 합한 규모임.

그림 2. 최근 유가동향(WTI) 기준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

- 미국의 경우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FRB의 급격한 금리인상 정책이 경기침체를 유발함.
- 반면, 이번 유가상승은 2003년 6월 단기정책금리가 46년내 최저치인 1%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했던 점으로 볼 때 FRB의 과도한 경기진작의 결과로 유가인상이 유발된 면이 있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가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없으나 유가상승의 폭보다는 유가상승의 속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임.
- 우리 경제도 2년 전부터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을 키운 것으로 보임(그림 2 참고).
- 한편 미국의 단기정책금리 인상이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완급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간 금리역전현상의 완화가 가능해짐.
- 이상에서 볼 때,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우리의 거시경제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